

司牧研究

제50집 (2023/여름)

교회법 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司牧研究』는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펴냅니다.

발 간 사

이상기후로 고생하는 여름~! 폭염, 폭우, 폭풍 등 인류는 이기적인 삶의 행태로 인하여 자연을 폭행하더니 이제는 부메랑 효과처럼 자신도 자연의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세 편의 교회법 관련 논문과 세 번역문을 게재한 사목연구 50집을 발간합니다.

수원교구 단대동성당 주임인 김길민 신부는 ‘교도권과 역사 속에 나타난 재속회의 사도직’이라는 제목으로 비오 12세 교황께서 1947년 발표한 사도 헌장 「쁘로비다 마테르 에글레시아」(Provida Mater Ecclesia)에서 재속회를 처음 인가한지 76년이 지난 재속회의 사도직에 대한 정체성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발표된 교회 문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속회(Seclarità)라는 한 울타리에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합법적인 다양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으며, 수도 성소와의 차별성을 통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부산교구 소속으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회법 교수인 안병영 신부는 세례성사에 관해서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제기된 물음에 대한 답서(2020.6.24)를 중심으로 ‘유효한 세례성사’을 주제로 세례성사의 유효성을 위한 조건들을 ‘질료, 형상, 교역자’라는 구성 요소를 신학적이고 역사적이며 교회법적 관점에서 고찰했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양식문을 통해 세례를 받은 것이 성사적으로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신앙교리성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사 양식문인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한 ‘성사양식문’(forma)에 대해서 자신이 변경하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며 교회의 공식적인 교의에 대해서 이완된 자세 또는 교

회의 가르침과는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해줍니다.

서울대교구 세종로 성당에서 사목하는 황광욱 신부는 사제들에게 예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미사 예물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을 통해 미사 예물의 참된 의미를 교회법적 차원에서 깊이 고찰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성찬의 희생 제사를 거행하며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현재화한다고 공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제가 미사를 드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자들의 미사 지향에 따른 예물은 어찌보면 부수적인 부분이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선익에 이바지하며 사제와 교회 사업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정한 구체적인 규정을 잘 알고 실행하는 것과 더불어 그 의도와 정신을 분명히 하는 것도 사제가 해야 할 본분임을 새삼 깨닫게 하는 논문입니다.

한국성토마스연구소 소장으로 가톨릭 철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와 저작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룡 신부는 이나가키 로스케의 ‘아퀴나스의 습성과 본성 개념’을 번역했습니다. 저자인 이나가키 로스케는 아퀴나스의 ‘습성’(habitus) 개념을, 인간 본성(natura humana)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분명히 하려고 시도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퀴나스의 모호한 본성(natura)의 개념을 습성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습성이 행위들의 원리이기에, 행위들 자체보다는 오히려 습성을 성찰함으로써, 행위들의 궁극적 원리인 본성 자체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전개 과정은 경험과 형이상학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마련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목연구소 소장으로서 전례학을 가르치고 있는 본인이 성품성사의 전문가인 주세페 페라로의 『성사들의 전례』(La Liturgia dei Sacramenti)에서 ‘사제서품기도’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사제들이 사제서품식을 통해서 사제품을 받는데, 그 서품식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은 ‘안

수'와 '서품기도'(축성기도)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사제생활을 하면서 과연 서품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며 사제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自問)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제서품기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동료 사제들이 사제직에 대한 성서적, 전례적, 신학적인 측면에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여 참된 사목자로 살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번역문을 게재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조직신학 교수인 전인걸 신부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신앙 교리성 장관 시절인 1990년 9월 1일 'Rimini meeting' 행사 중에 '늘 개혁하는 회사'라는 주제로 대중들 앞에서 발표한 담화문과 그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번역해주었습니다. '리미니 미팅'은 가톨릭 평신도 운동 단체 '친교와 해방'이 1980년부터 매년 8월 말 ~ 9월 초 이탈리아 중부 리미니에서 개최하는 평신도 가톨릭 축제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교회에 있어서 '개혁'의 참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진정한 개혁'의 본질을 '활동가'와 '찬미가'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후에,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면서 큰 돌에 숨어있는 본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제거'하는 과정을 비유로 '부정 신학'의 장점을 부각시킵니다. 이 전개과정은 인상적입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사목연구' 잡지가 어느덧 제50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이번에 새로 개정된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 발간에 맞추어 '사제 양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6월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장
윤종식 신부

발간사/ 3 윤종식

(특집) 교회법

교도권과 역사 속에 나타난 재속회의 사도직/ 8 김길민
 유효한 세례성사/ 51 안병영
 미사 예물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 71 황광욱

(번역)

아퀴나스의 습성과 본성 개념/ 118 이나가키 료스케, 이재룡 옮김
 사제서품기도/ 140 주세페 페라로, 윤종식 옮김
 늘 개혁하는 회사/ 169 요셉 라칭거 추기경, 전인걸 옮김

(부록) / 197

- 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관/ 199
 - I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 운영 규정/ 205
 - II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학술지 편집 및 심의 규정/ 208
 - IV.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연구위원 명단/ 210
 - V.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기 학술 심포지엄 연보/ 211
- 司牧研究 총목차(1994-2022 겨울)/ 213

Contents

Editorial Preface/ 3 *Rev. Yun, Jongsik, S.L.D.*

[Special Issue] Canon Law

The Apostolate of Secular Institutes in Magisterium and History/ 8 *Rev. Kim, Kilmin, J.C.D.*

Valid sacrament of baptism/ 51 *Rev. Ahn, Byeongyoung, J.C.D.*

A Study on the Mass offerings in Canon Law/ 71 *Rev. Hwang, Gwangwook, J.C.L.*

[Translation]

Habitus and *Natura* in Aquinas/ 118 *Inagaki Ryosuke, Ph.D.*
tr. Rev. Lee, Jaeryong, Ph.D.

The Ordination Prayer for Priests/ 140 *Giuseppe Ferraro, S.T.D.*
tr. by Rev. Yun, Jongsik, S.L.D.

A company always in reform/ 169 *Card. Joseph Ratzinger*
tr. by Rev. Jun, Ingeol, S.T.D.

[Appendixes]/ 197